

# 전남~제주 해저터널 재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주목'

### 제주 입도객 많아져 B/C 상향 가능성 공항 보완책으로 고속철 필요성 강조

수면아래로 잠복했던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이 논의됐다.

민주평화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와 올



해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총리인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그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도의 요구로 지난 2011년 해저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경제성(비용대비 편익·B/C)이 낮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실시기타당성조사 결과는 B/C(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71~0.78로 기준치 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B/C 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제주도 연간 입도객(관광객)이 1300만명이 넘어서면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B/C가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데 최근 제주도 입도객이 1500만명 시대를 열어 이 사업의 B/C 상향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제주가 제2 공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폭설, 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 대안 등으로 고속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효과 등을 설파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주에 현재 제2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관광객 수 등의 여건을 감안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0월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지만 제주 도민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이후 중단했다.

전남-제주 고속철도는 목포-해남(66km)은 지상, 해남-보길도(28km)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km)는 해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총연장 167km에 사업 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완도군,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망 구축 완료

### 내년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자료 제공

완도군은 4일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측정망은 관련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신지면사무소 부근 농어민 건강증진센터 건물 옥상에 세웠다.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부터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완도군은 측정망이 없어 인근 지자체의 관측 정보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질산가스, 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10종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제진 기자 wando1106@

## 함평군, 관급공사 때 지역민·업체 우대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급공사 시 지역민·지역업체 우대카드를 꺼내들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운행 군수는 직접 주재한 1일 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놓고 있는 중장비 등이 너무 많다"며, "일 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부회의 종료 후, 이 군수는 즉시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현장에 지역민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고용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훈시를 발령했다.

또 4일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가 100분의 7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내용과 읍·면이 발주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관내 업체의 장비와 생산품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공문도 보내 지역민과 지역업체를 우대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이 군수는 "지역민과 지역업체를 우대할 다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함평군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함평=양수영 기자 ysn6313@

## 민선 7기 '민생·동행·혁신' 미래 기반 구축

### 광주시 문인 복구청장 공약사업 사업 실현 위해 2871억 투입 계획 도시재생·도로개설 등 10개 사업

광주시 복구가 구민 행복을 이끌고 복구발전의 기틀을 다질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구민 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복구!' 실현을 위해 복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로드맵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복구는 4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면밀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민선 7기 공약을 확정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활력있는 민생경제 ▲매력적인 도시재생 ▲행복나눔 동행복지 ▲어우러진 생활문화 ▲주민참여 혁신행정 등 5대 구정방침과 38개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국비 1100억원, 시비 1021억원, 구비 등 750억원 총 2871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북



문인 광주 복구청장

구는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산업현장 경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산업단지 시설개선 및 청년친화형 사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컨설팅 시스템 구축, 청년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활성화, 신안교~광천1교간 도로개설,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광주 솔로몬 파크 건립 등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행복나눔 동행복지 분야는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실버 job사업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행복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우러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등산 시가문화권 관광벨트 조성, 중의공원 문화예술벨트 조성, 광주비엔날레 활성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이 확정됐다.

주민참여 혁신행정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구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청년 참여예산 운영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복구발전과 구민편의 증진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44만 복구민과 맺은 중요한 약속이자 복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복구=봉채영 기자 bcy2020@

### 인천북구도서관

#### 청렴도서 전시회 개최

인천북구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공공도서관의 책을 활용해 인천시민 및 직원들의 청렴의식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도서 40여권을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청렴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뇌물의 역사', '리더의 승패는 청렴이다' 등 청렴도서 40여권을 북구도서관 신관 로비 1층에 전시해 시민 및 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접근하기 쉽고, 책 속 인물들의 청렴사례를 교훈삼아 깨끗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

또한 직원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인 청탁 사례와 청탁금지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 하고 헛갈리기 쉬운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복지 부정수급 근절 위한 예방교육 실시

### 광주 서구 공무원·주민 등 대상

광주 서구가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섰다.

복지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신뢰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추세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에 서구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공무원, 시설장, 주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수급 예방교육

또한, 구청홈페이지에 '복지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라는 팝업을 게재하고 배너를 설치해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 받는다.

광주 서구=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 해질 18:10

**10월 5일 (금)**  
음력 : 8월 26일

수도권 날씨 **16~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3/21, 동두천 13/21, 가평 13/20, 파주 14/22, 서울 16/21, 양평 15/20, 인천 17/21, 수원 17/21, 용인 17/21, 평택 16/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